

당국 경계심으로 하단 지지하며 1.50원 하락 마감

■ 공급 우위의 역내 수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전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4.00원 하락한 1,082.550원에 출발했다. 이후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입되면서 매도 압력이 확대되었고 달러화는 1,081원 선으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저점 결제 수요와 숏커버가 일어나면서 낙폭을 줄였다. 또한 당국의 경계심이 유지되면서 하방경직성을 띤 달러화는 이날 1,081.50원에 저점을, 1,085.30원에 고점을 기록했다.

美 FOMC 회의 관망세로 하단지지하며 무거운 흐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지난 美 고용지표부진으로 연준의 부양책 축소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화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주 미국 FOMC 정책회의를 앞두고 자산 매입 축소 여부 및 축소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어져 엔화와 달러화는 금일 추가적인 움직임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다우지수 : 15300.64, -25.96p(-0.1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8.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2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